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1. 3.(목)
담당 부서	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최치연 (02-2100-1685)
		담당자	사무관 윤세열 (02-2100-1686)

## 청년도약계좌 투자손실을 혈세로 메워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- 이데일리 11월 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### 1. 기사내용

- 이데일리에서는 11월 2일 「“혈세로 투자손실 메워줘”... 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논란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“청년도약계좌 투자형 상품의 납입원금에 맞춰 정부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재정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### 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

- 청년도약계좌 관련 세부사항은 국회심의 등을 거쳐 '23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화해나갈 예정으로, 현재 확정된 바 없는데,
  - “혈세로 투자손실 메워” 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·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.